



환경기술인협회, ‘인적자원개발협의체’ 구성 운영

(사)한국환경기술인협회(회장 권기태)는 8월 29일자로 환경분야 인적자원개발협의체(ENSC:environmental sector council)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. 협회는 2010년에 환경부(환경산업기술원)로부터 재직자 대상 물순환 재이용 전문가양성사업과 인재개발협의체(sector council)를 운영한 바 있으며, 그후 2011년부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매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(물환경분야)을 위탁받아 수행해 오고 있다.

또한 금년 6월부터는 고용노동부가 발주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사업(NCS:national competency standards)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공동으로 대기환경관리분야와 온실가스관리분야의 NCS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.

이에따라 협회는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4조와 관련하여 환경 전분야의 특화된 현장교육과 인력양성사업을 위하여 전문 연구부서를 배치하였고, 연구인력 및 조직은 사

업의 특성에 따라 외부인력과 내부인력으로 구성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 갈 계획이다.

협회는 향후 고용노동부로부터 발주되는 NCS사업에 직·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국내 환경분야 기술 및 교육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.

국가직무능력표준(NCS)이란 한 근로자가 자신의 직업에서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능력(지식, 기술, 태도)을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 하는 것이다.

국가직무능력표준화 사업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진화된 직무분석 기법이다.

자격기본법 시행령 : 제4조(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의뢰등)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계수요에 적합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기 위하여 “산업발전법” 제12조 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와 그 밖의 직종별 협의체 및 관계 전문기관 등에 국가 직무 능력표준의 개발을 의뢰할 수 있다. ㉠



‘물순환 재이용 전문가 양성과정’ 교육후 기념촬영



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사업 워크숍